

「胡乱」研究の注意点

鈴木 開 (東京大学)

発表要旨

「胡乱」(こらん)は、朝鮮半島においては清のホンタイジによる二度の朝鮮侵略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の「胡乱」に対する研究はその歴史的重要性に比して立ち遅れてきた。その原因は様々に考えられるが、関連資料が明、清、朝鮮王朝にまたがって広範囲に存在し、しかもそれら資料が、漢語、満洲語、モンゴル語など複数言語によって記されていることが、中国史、韓国史といった枠組みからの接近を難しくさせたことも一つの原因であると思う。近年、主に満洲語史料を利用した清朝史研究の活発化によってこうした課題は徐々に克服されつつあるが、「胡乱」の実態解明はまだまだこれからという状況である。本発表では、近年の韓国における「胡乱」研究の動向を紹介しながら、そこにみられる「胡乱」理解の問題点を二点ほど指摘したい。一つは、第一次侵略の際に結ばれたとされる「丁卯和約」に関するものであり、もう一つは、この時期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外交官朴蘭英の第二次侵略時の死に関するものである。この二点はいずれも些細なもののようにみえるかもしれないが、「胡乱」研究における資料の重層性、多言語性といった注意点を理解するための格好の材料を提供してくれる。

“호란”이란, 한반도에서는 청나라 홍타이지의 두 차례에 걸친 침략을 가리킨다. 이 호란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태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는데, 관련자료가 명, 청, 조선왕조 등에 걸쳐서 남아 있고 더욱 그 자료들이 중국어, 만주어, 몽골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사, 한국사와 같은 틀에서의 연구를 어렵게 만든 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요즘 만주어사료를 이용한 청조사연구의 발전으로 그런 과제는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호란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의 호란연구를 소개하면서 그 호란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정묘호란 때 성립됐다는 “정묘화약”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시기의 외교관 박란영의 병자호란 때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호란연구와 관련된 주의점을 알기 위한 좋은 재료를 제공해 준다.

略歴

<鈴木 開/SUZUKI Kai>

2006年明治大学文学部卒。2014年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博士課程修了。博士(文学)。

現職：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助教

専門分野：朝鮮近世政治外交史、中朝・中韓関係史

主な著作：「丁応泰の変と朝鮮—丁酉倭乱期における朝明関係の一局面」(『朝鮮学報』第219輯、2011年)、
「朝鮮丁卯胡乱考—朝鮮・後金関係の成立をめぐって」(『史学雑誌』第123編8号、2014年)、「丙子の乱と朝清関係の成立」(『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55号、2017年)